마음 한번 돌리면 苦·罪 붙을 곳 없어

☞ 19면에서 계속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면 뭘하고 여자면 뭘하나. 누구나 다 아프면 울고 좋으면 웃죠. 오히려 남자들이 더 외로울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울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이기 이전에 가장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체 한 울에서 태양 빛처럼 비 내리듯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지는 광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면서 그 마음의 통신을 늦추지 않고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문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으며, 믿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부처님 이전의 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심오한 뜻이 있습니까? "공에 모든 것을 놓아라" 하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 공은 없다는 뜻입니까? 없는 곳에 놓으란 말씀은 공이란 것이 있으니 그곳에 놓으란 뜻이 아닌가요? 그럼 그 공 자체도 없어야 올바른 뜻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머리 속에 맴돌 뿐,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군요. 무지에서 오는 궁금함이 매우 많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 거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사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부처를 알 수도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헤아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 떠나서는 부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드릴 때도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본래 둘이 아니니, 모두 일불(一佛)의 한마음으로써, 지극하게 내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한꺼번에 합해서 일배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 부처님만의 길이 아니고, 부처님 계시기 전부터 수 없는 선지식들이 걸어가셨던 진리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자세히 한 번 본다면 너무도 찰나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말도 마음도 행동도 딸이 되었다가, 동생이 와서 누나하고 부르면 또 자동으로 누나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게 찰나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짧은 순간 순간만 바뀌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남자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한 순간 이 몸을 벗고 여자가 된다면, 또 자동으로 여자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바뀌어서 돌아가는 것이기에 순간순간 화(化)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은 단지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찰나찰나 바뀌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어 돌아가게 하는 근본, 영원한 나의 조상이자 뿌리인 공한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도리를 빨리 알려면, 이유를 붙이고 따져서는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놓는 공부는 바로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이고 소멸시키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실천하고 가는 겁니다.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나가는 실천일 뿐이니 그 붙여진 이름에 매이지 마시고 직접 진리를 맛보아 나가는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시험 결과 기다리기 두려워

문 저는 얼마 전에 아주 큰 시험을 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학교 입학시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조바심이 많이 납니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자세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진심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도,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벌써 '야! 영원한 친구야, 너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 하고 뜻으로다 그냥 자기가 마음이 스스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설 믿고, 그냥 믿다가도 말아 버리고,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라빠진 거야 하고 내던지면 그건 일러주지 않죠. 말하자면 전 우주에로의 즉, 통신처라고도 볼 수 있죠. 통신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가고 오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게도 만들고 그러는 보배처거든요. 거기서 너무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얘! 주인공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 뜻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절로 그냥 든든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듬직하지가 못해요. 아주 바깥으로 방황하게 되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저절로 믿고 저절로 든든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깨달으면 진짜로 또 알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그 마음은 어떤 놈이고 불안하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그것이 모두 한 구멍에서 나온다는 것만 안다면 그 불안하다는 생각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살면서 지은 죄 참회하고 싶어

문 제가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수 없는 억겁을 통해서 살아온 대로 에누리 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이생에 지은 모든 죄를 마음 속 깊이 참회하고 참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문을 청하옵니다.

답 똑똑히 들으세요. 본래 마음은 저 달나라에도 한찰나에 갈 수 있고, 한찰나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광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수레가 돌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면, 거기 먼지 앉을 자리도 없을 거고, 고(苦)가 있을 것도 없고 또 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번 점프해서 돌리는 데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없다도 없으니깐 한번 잘 해 보라는 겁니다. 그 도리를 알면 정말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아주 수월하고, 또 이 세상 살아나가기만 수월한 게 아니라 세세생생에 자기가 뿌린 걸 다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내가 부모가 되었다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되었다가 부모가 되면서, 이렇게 거쳐서 오면서 인연을 지은 인과,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아주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봐요. 그러고 이 공부하는 데 뭐, 생활이 지장이 된다, 업이 두터워서 안된다 하는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이 즉 공부고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예요. 알았지요?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게 잘 해야 생활선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 성 차이 업식 탓인지요

문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삶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스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살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어리석어 가르침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성위주의 기득권에 의해서 유지되고 여성은 아직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직장에서 자주 느끼는 바입니다. 어디선가 남성, 여성의 성 차이가 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요? 얼마 전부터 성차별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어느 사람이 책에서 봤다면서, 여자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말하자면 학술적으로 지어 놓은 얘기이고 이론적인 문제지 그건 선법이 아닙니다. 선(禪)에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가고 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봤는데 본 게 없습니다, 금방 또 딴 걸 봐야 하니까요. 금방 딴 걸 봐야 하고 또 딴 걸 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고정시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내가 한 일이 없다. 또, 할 것도 없고 앞으로 한다고 할 것도 없다." 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들어 있어서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먹는 것도 자기가 혼자 해서 먹는 게 없죠? 입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더불어 같이, 안에서도 더불어 살고 바깥에서도 더불어 살고, 모두 그렇게 더불어 사는데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만물의 이치가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하물며 여자 남자라고 못박아 둘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다를지언정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데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또, 애 어른도 없고요. 그러니까 못나고 잘난 것도 없고 잘살고 못사는 것도 없고 속가의 사람과 출세간의 사람, 입산한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마음 공부하는 데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자라고 언제까지나 여자로만 있다면 또 모르죠. 남자가 남자로만 있다면 또 몰라요. 그러나 순간에 여자가 남자로 변하고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데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도 남자가 아니기에 여자, 남자 따질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다 여자다를 따지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텔레비전을 보면 탤런트들이 연기를 실감나게 진짜처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영화 찍는 탤런트들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갈 데가 있고 자기가 살 데가 있고, 자기가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을 남자로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여자로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여자의 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겪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도리를 다 알면 편안하게 그냥 살 텐데 그게 아니니깐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승진을 못하면 못한다고 걱정, 아프면 죽을까봐 걱정, 또 죽으면 그냥 안달박달을 하고 야단법석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깐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야 하고, 그 모습들이 혹시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늙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진짜 당신 에너지의 뿌리는 죽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천차만별로 용도가 다르지만 나오기는 한 군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믿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면 또 못 믿는 게, 상대적으로 생기게 되니깐 그냥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근본을 믿고, 근본에 일체를 맡겨서 살아간다면, 근본은 여자도 남자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니까 그렇게 진실하게만 한다면, 내가 여자든 뭐든, 모자라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그냥 진리의 맛을 보며 뚜벅뚜벅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붙들고 발버둥치지 말고
일체 모든게 한마음에서 나온거니
한마음이 해결토록 내던져 맡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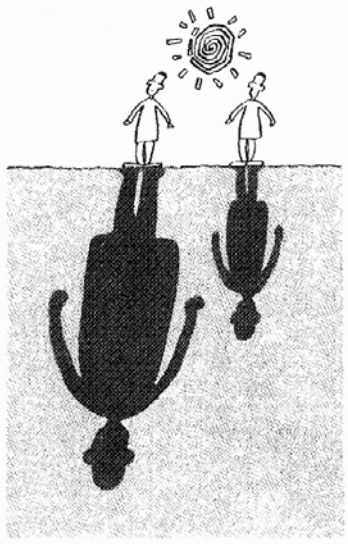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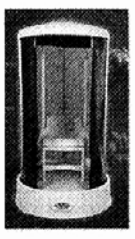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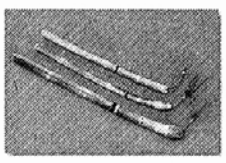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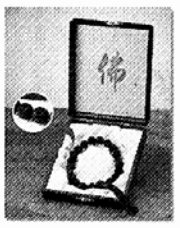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32kg 의자-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 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죽 비

· 뿌리죽비(대) 30,000원
· 뿌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 뿌리(대) 뿌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며,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삼보죽염 세트


황토기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신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용량 : 600g / 가격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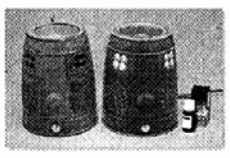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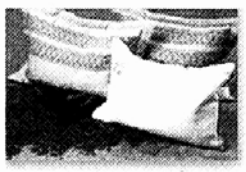
기도포 / 다포

· 기도포 84cm×39cm / 가 격 : 1,600원
· 다 포 50cm×39cm / 가 격 : 800원
· 다량 구매시 할인 및 단체명 인쇄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 250,000원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아로마오일 10ml 포함)

아로마 약초 베개

· 재료 : 감국, 참숯, 결명자, 약쑥, 상엽 외 10여가지
· 외피 : 삼베 100%
· 가격 : 39,000원

연꽃 불자시계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염불 / 강의 (CD · 테잎)


■ 무비스님강의집(금강경 테이프 20개) 가격 : 45,000원
■ 무비스님강의집(지장경 테이프 20개) 가격 : 45,000원
■ 무비스님강의집(진심직설 테이프20개) 가격 : 45,000원
■ 문구인스님법음집(테이프 20개) 가격 : 66,000원

· 관세음보살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금강경(영인스님 CD) ₩10,000
· 부모은중경(영인스님 CD) ₩10,000
· 석가모니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신묘장구대다라니(영인스님 CD) ₩10,000
· 약사여래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예불천수경 (영인스님 CD) ₩10,000
· 우리말 천수경(영인스님 CD) ₩10,000
· 장고기락 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장엄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상)(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중)(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하)(영인스님 CD) ₩10,000
· 지장정근(영인스님 CD) ₩10,000
· 천도재 의식 (영인스님 CD) ₩10,000
· 천도타령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아미타경(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영인스님 CD) ₩10,000
· 칼양경(영인스님 CD) ₩10,000
· 회심신중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회심곡(영인스님 CD) ₩10,000
· 낱개 CD ₩10,000

Dr.반다시(의자용)방석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참선 명상 방석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약초 보감 내의 세트

○ 남성 팬티 2종 세트
· 종류 : 쑥 / 숯 / 황토
· 가격 : 각 19,000원
○ 여성 허브 팬티 3종 세트
· 구성 : 라벤다 / 자스민 / 페퍼민트
· 가격 : 19,000원
재질 : 면 100% / 사이즈 : FREE / 특징 : 천연염료염색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 50,000원